



대림 제3주일
(자선 주일)

내가 주는 평화는 세상이 주는 평화와는 다릅니다 (요한 14,27)

가톨릭마산

발행 천주교 마산교구 편집 미디어국 | 055·249·7072 media2@cathms.or.kr 경상남도 창원시 마산합포구 오동북16길 27 홈페이지 <http://cathms.kr>

자선주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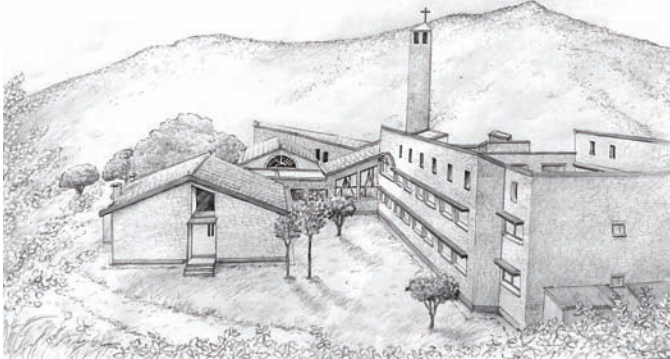
자선주일은
국내외 이웃에게
따뜻한 사랑의
나눔을 실천하는
날입니다



한국천주교주교회의 사회복지위원회
Caritas Committee of the C.B.C.K.

글씨 · 그림 · 정교장 아가다

고성 가르멜 여자 수도원



저희 수도공동체는 2019년 12월부터 마산교구 주보를 통해 여러분을 만나 뵙게 되어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가르멜 수도회는 교회와 세상을 위해 기도하는 공동체이고, 저희들은 특별히 마산교구의 모든 분을 위하여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가르멜산에 기원을 두고 있는 봉쇄 관상 수도회인 가르멜 수도회는 BC 900년경에 사셨던 엘리야 예언자의 “저는 주 만군의 하느님을 향한 열정에 불타고 있습니다.”(1열왕 19,10)

라는 말씀을 모토로 삼고 있습니다. 엘리야의 정신을 따라 살고자 했던 순례자들이 1150년경 가르멜산의 엘리야 샘 근처에서 은수생활을 시작하여 1210년경 정식 수도회로 교황청의 인준을 받았습니다.

1562년 예수의 성녀 테레사는 기존의 가르멜 수도회를 개혁하여 스페인 아빌라에 첫 맨발 가르멜 여자 수도원을 창립하였고, 십자가의 성 요한의 도움으로 1567년 맨발 가르멜 남자 수도원도 창립하였습니다. 로마에 총본부를 두고 있는 맨발 가르멜 수도회는 총장님의 권한 아래 남자가르멜, 여자가르멜, 재속회로 구성되어 있고, 현재 한국에 있는 가르멜 수녀원은 저희 고성을 비롯하여 대구, 대전, 밀양, 상주, 서울, 천진암, 충주에 설립되어 있습니다. 성녀 테레사가 원한 가족적 모습을 보전하기 위해 수녀원 정원은 21명이며, 이 인원을 넘으면 새 수녀원을 설립하게 됩니다. 설립된 새 수녀원은 독립된 공동체로, 가르멜에서는 본원이나 분원의 개념이 없습니다. 고성 가르멜은 마산교구장이셨던 故 장병화 요셉 주교님의 초청으로 1984년 7월 16일 설립되었으며, 하느님의 은총 아래 설립 35주년이 되었습니다.

가르멜의 영성은 수덕적이고 관상적인 삶의 형태인 엄한 봉쇄 안에서 자기 포기과 침묵, 고독을 통하여 교회 안에서 기도의 사도직을 실천하며 하느님과의 일치를 추구합니다. 우리들의 삶은 기도로 이루어져, 미사를 중심으로 하루 일곱 번의 성무일도, 아침 저녁 각 1시간의 묵상기도, 영적독서, 휴식, 노동(제병, 미사주, 소규모의 밭농사, 과수재배 등)의 적절한 조화와 균형이 이루어져 있으며, 온종일 하느님 현존 안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나는 교회의 딸입니다”라고 말씀하신 예수의 성녀 테레사의 정신에 따라, 저희는 세상과 지역교회의 문제에 깊은 관심과 일치, 연대감을 지니면서 교회와 사회, 모든 사람들을 위하여 교회의 심장의 역할을 다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성탄을 향해 떠나는 순례

“구세주 빨리 오사 어두움을 없이하며 동정 마리아에서 탄생하옵소서.”

교회의 새해를 알리는 대림시기가 시작되면 가르멜 수녀들은 손에 촛불을 들고 어둠과 고요로 덮인 수녀원

의 복도를 행렬하며 아기 예수님을 기다리는 마음을 노래합니다. 하루 피정을 시작하는 수녀님에게로 아기 예수님을 모시고 가는 공동체 행렬은 우리의 일상이 하느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순례의 여정임을 느끼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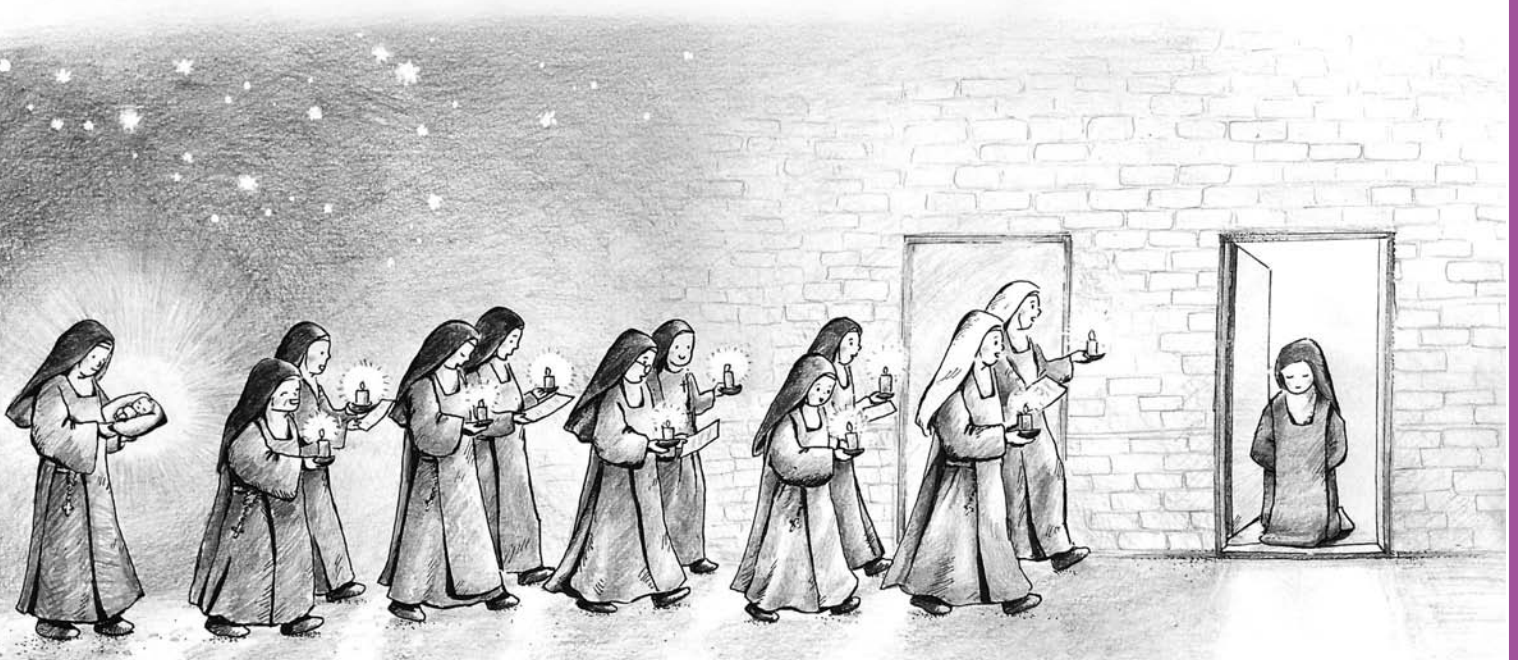
아버지의 품을 떠나 전혀 다른 차원인 세상으로 내려오신 성자 예수님.
가브리엘 대천사를 통해 성령으로 말씀을 잉태하리라는 소식을 들으신 성모님.
꿈에 천사의 말씀을 듣고 마리아를 아내로 맞아들이신 주님의 양부 요셉.

힘들고 낯선 상황에서도 '피앗'으로 응답하시며 순례의 길을 걸어가셨던 이분들은 우리에게 어떻게 순례의 길을 떠나야 하는지를 알려주고 있습니다.

성모님께서서는 '자신의 것'을 하나도 품지 않으셨기에 '하느님의 말씀'만을 온전히 품을 수 있으셨고, 그로 인해 말씀의 탄생이라는 성탄의 기쁨을 전 인류에게 안겨 주실 수 있었습니다. 이러한 성모님의 가난한 모습은 타성에 젖어 익숙해진 생각, 말, 행동, 가치관에 안주해 있는 나에게 떠나라고 하십니다. 이 여정을 계속하면서 우리는 하느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만나고, 그 말씀을 마음에 품고 하느님의 말씀이 내 안에서 탄생하도록 키워나가야 합니다.

하느님 현존으로 가득찬 가르멜 수녀의 수방(修房)에는 과거, 현재, 미래가 공존합니다. 과거 2000년 전 우리에게 참사랑이 무엇인지를 알려주기 위해 순례의 길을 떠나오신 예수님, 내 마음의 골방에서 지금 나에게 말씀하시는 예수님, 우리를 새롭게 변화시키고자 다시 오실 아기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스도의 탄생이 전 인류에게 선물이 되었듯이, 나 또한 순례의 길에서 자라난 말씀이 내 이웃에게 새로운 선물이 될 수 있게 해야 합니다. 주님은 지금의 우리들에게도 하느님의 말씀을 만나고 잉태하며 새롭게 태어날 성탄을 향한 순례의 길을 떠나라고 초대하십니다.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셨고 그 생명이 당신 아드님에게 있다는 것입니다.
아드님을 모시고 있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고,
하느님의 아드님을 모시고 있지 않는 사람은 그 생명을 지니고 있지 않습니다.”(1요한 5,11-12)





초월 지평과

신학 칼럼을 시작하며

조민아 마리아 교수/ 조지타운대학교

인공지능 ‘알파고’를 상대로 벌인 대국에서 최초이자 최후의 승자가 되었던 프로 바둑기사 이세돌 9단이 지난 19일 은퇴했다. 은퇴 대국의 상대로 그가 택한 상대는 흥미롭게도 ‘한돌’이라는 국내 바둑 인공지능인데 대국 방식은 접바둑 치수 고치기다. 두 사람의 바둑 실력이 벌어질 때 약한 쪽에서 미리 몇 점을 깔고 시작하는 바둑이 접바둑이다. 말하자면 이런 식이다. 이세돌 9단이 먼저 두 점을 깔고 한돌의 백번으로 시작한다. 이 9단이 1국을 승리하면 2국은 정선(이 9단의 흑번)으로 대국한다. 그러나 1국을 패하면 2국은 석 점을 깔고, 2국마저 패하면 마지막 3국은 넉 점을 깔고 둔다. 즉, 이길 수 없음을 전제하고 둔다는 말이다. 담담하게 대국 방식을 설명하는 이 9단의 인터뷰를 보며 나는 마음이 착잡했다. 바둑은 ‘예술’이다, 두 사람의 창의성이 만나 침묵 가운데 만드는 ‘하나의 작품’이라 하던 그가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을 이길 자신이 없어 은퇴하며 마지막 대국에서 자신의 가능성을 끝까지 실험하는 모습이 어쩐지 처절하다. 과장해서 말하자면 인공지능이 지배할 거대하고 무시무시한 미래 앞에 인간의 창의력이 지닌 존엄성을 내걸고 홀로 맞서는 순교자 같기도 하다.

이처럼 인공지능이 인간을 대체하는 세상에서 신학을 공부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인공지능과 인간의 차이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가장 결정적인 것 중 하나는 자신의 한계를 자각할 수 있는가, 그 한계에 머물러 성찰할 수 있는가 일 것이다. 지능으로는 벌써 인간을 뛰어 넘었고, 근래에는 감성과 창의력의 영역까지 인간을 넘보는 인공지능은 결코 자신의 한계를 자각하고 성찰하지 못한다. 인공지능의 한계는 프로그램 오류에서 비롯된 ‘버그’일 뿐이며 프로그램을 수정하거나 더 나은 것으로 대체함으로써 극복된다. 신학은 인공지능이 결코 내려올 수 없는 바로 그 지점, 자신의 한계를 받아들이고 성찰하는 데서 시작된다.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진리를 신앙과 이성으로 이해하려는 학문이 신학이다. 하지만 신학은 인간의 이성과 지적 능력을 통해 우수한 지식을 개발하여 하느님의 존재를 입증하거나 하느님의 인식을 통찰하고자 하는 학문이 아니다. 오히려 하느님 앞에 인간이 지닌 한계를 수궁하고, 그 한계를 드러내는 역

사의 지평에 서서, 지평 너머의 초월로부터 다가오는 신비를 우리 삶의 자리로 받아들이고 이해하려는 학문이다. 인간이 먼저 나아가 분석하고 계산하고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하느님께서 미리 초대하신 당신과의 관계에 응답하고, 하느님께서 이미 열어 주신 신비에 신앙으로 참여하며 그 무한한 사랑에 유한한 인간의 언어를 입히는 것이 신학이다.



그림/ 조민아 마리아

하느님이 인간에게 보여주신 가장 명확하고 결정적인 신비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드러났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과 부활은 그리스도교 신학의 중심이다. 한데 예수가 인간에게 온 자리 또한 인공지능이 추론해 낼 수 있는 모든 최고값의 반대편에 위치해있다. 예수는 변두리마을 축사에 지친 여장을 풀 가난한 난민 노동자 부부에게, 고개조차 제대로 가누지 못하는 약하디 약한 아기의 모습으로 세상에 왔다. 예수의 탄생을 가장 처음 접한 이들은 오늘날로 치면 하청업체의 비정규직 노동자들인 목자들이였다. 예수는 평생 ‘갑’이 되어 본 적이 없다. 그는 방랑자요 노숙자였으며 짧은 평생을 오로지 ‘을’들과 함께 살았다. 그리고 그는 꿈꿨던 하느님 나라를 차마 이루지 못한 채 서른세 살 청년의 나이로 죽었다. 그런데 이 비참한 실패를 통해 부활이란 기적이 일어나고, 그가 꿈꾸었던 세상이 우리에게 열렸다. 그가 바랐던 세상은 어떤 세상인가? 인간을 단순한 부속품, 폐기 가능한 대체물로 만드는 질서를 거역하는 세상이다. 모든 살아있는 것들의 존재를 그 자체로 귀하게 여기는 세상이다. 거짓과 의심과 미혹의 그림자가 거두어지고 진리가 드러나는

세상이며, 생명이 생명과 어우러져 생명의 근원이신 하느님께로 향하는 세상이다.

그리스도교 신학은 이 기이한 사람, 기이한 하느님 예수가 드러낸 사랑과 그가 죽어서까지 살리고자 했던 세상을 공부하는 학문이다. 신학은 또 그렇게 기이한 우리의 하느님을 향한 기도다. 우리의 한계를 알고 그의 사랑을 알면 알수록 신학은 기도가 된다. 그 신비에 우리를 맡기며 믿고, 바라고, 사랑하는 기도가 된다.

다음달부터 그 신학을, 기도를, 여러분과 함께 하려 합니다. 마산교구에서 <신학칼럼: 지평과 초월>이란 이름으로 부족한 필자에게 귀한 공간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공동체, 역사, 신앙, 성사라는 큰 주제를 중심으로 가톨릭 신학을 풀어갈 여정에 한달에 한번 길동무가 되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일림



교구장 동정

견진성사

일시: 12월 15일(주일)

장소: 남해성당

일시: 12월 22일(주일)

장소: 반송성당

마산 제2지역 판공일자

12월 17일(화) 19:30 월영성당

12월 18일(수) 19:30 월남동성당

12월 19일(목) 19:30 상남동성당, 진동성당

12월 20일(금) 19:30 완월동성당, 남성동성당

교구/본당

부산가톨릭대학교 종강미사

일시: 12월 16일(월) 11:00

장소: 부산가톨릭대학교

문의: 055·249·7061

신학생 등계연수

일시: 12월 17일(화)~19일(목) 2박3일

장소: 마산가톨릭교육관

문의: 055·249·7061

구역분과위원장 모임

일시: 창원지구- 12월 17일(화) 14:30

장소: 반송성당

일시: 진주지구- 12월 18일(수) 14:30

장소: 신안동성당

일시: 거제지구- 12월 19일(목) 14:30

장소: 고현성당

문의: 사목국 055·249·7021~3

청년성서 그룹 공부 모임

대상: 성경공부에 관심 있는 청년

과정: 창세기, 탈출기, 마르코, 요한

문의: 청년성서모임 010.3156.6993

위원회/기관/단체

마리아사제운동 교구 평신도 체나콜로 월기도

일시: 12월 16일(월) 13:00~15:00

장소: 사파동성당

문의: 회장 010·9399·5454

민족화해위원회

일시: 12월 17일(화)

장소: 교구청

문의: 055·261·8201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12월 기도모임

일시: 12월 23일(월)

성체조배 11:00, 13:00

미사 및 강의 13:40 (이청준 신부)

장소: 사파동성당

대상: 지속적인 성체조배회 봉사자 및 전신자

문의: 010·3903·8234

교구 합창 단원 모집

연습: 매주(화) 19:30

장소: 교구청 1층 강당

대상: 남·여 신자(만 55세 까지)

문의: 교구 합창단 총무 010·4589·8120

수도회

렉시오 디비나 피정

내용: 유덕현 아바스와 최재용 원장이 함께 하는 자연속에서 하느님 만나기

일시: 매주(토) 14:00~(주일) 14:00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010·2816·1986

성소자 모임 (개별방문 상시접수)

일시: 12월 24일~25일

장소: 고성 올리베타노 성베네딕도 수도원

문의: 미카엘 수사 010·8798·2986

평신도 기도학교 (1년과정)

일시: 매월 셋째 주일 또는 넷째 주일 선택 가능

대상: 기도를 배우고자 하는 평신도 누구나

문의: 작은자매관상선교회 010·6626·7665

골롬반성인과 함께하는 선교여행

일시: 2020년 4월 8일(수)~14일(화)(1주)

장소: 제주 강정마을 등

대상: 만 19세~40세, 선착순 10명

참가비: 25만 원, 마감: 2월 말까지

문의(접수): 성골롬반외방선교회 02·927·2705

기 타

2020 가톨릭교리신학원 통신 (우편) 신학과정

원서접수: 11월 11일(월)~2020년 2월 7일(금)

내용: 가톨릭 신학 26과목

대상: 가톨릭 수도자 및 평신도(18세 이상, 학력 제한 없음)

문의: 02·745·8339, ci.catholic.ac.kr(원서다운)

2020학년도 꽃동네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보건·복지·상담심리의 창의적 융합인재 양성 대학
대학 기본역량진단평가 자율개선대학 선정
사립대학 사회책임지수 충북 1위

신입생 전원 꽃대장학금 지급

내 집 같은 기숙사 신입생 100% 입사 가능

모집학과: 사회복지학과, 상담심리학과, 간호학과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문의: 043·270·0100

2020학년도 대구가톨릭대학교 (총장 김정우 요한 신부) 정시모집 안내

전국최대규모 가톨릭계 종합대학

의료보건 및 소프트웨어 특성화대학

입학정원: 2,912명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입학상담: 053·850·2580

2020학년도 부산가톨릭대학교 신입생 정시모집

원서접수: 2019년 12월 26일(목)~31일(화)

선발 '군': 18개 학과에서 '가군'과 '나군'으로 분할 선발

선발인원 및 원서접수 방법: 홈페이지 ipsi.cup.ac.kr 참조

입학상담: 051·510·0702(입학처 김종진 모세)

제주 성 이시돌 자연순례 피정 (올레길, 미사, 기도, 강의)

일시: 12월 30일~1월 2일, 1월 6일~8일, 1월 31일~2월 2일,

2월 11일~13일, 2월 19일~20일, 2월 27일~29일

대상: 개인, 가족, 본당 단체 등

문의: 064·796·9181

품격순례 분도여행사 www.bundotour.com <table border="1"> <tr> <td>2월 1일</td> <td>이스라엘 요르단</td> <td>12월</td> <td>439 만원</td> </tr> <tr> <td>2월 10일</td> <td>유럽 3대 성모발현지</td> <td>13월</td> <td>395 만원</td> </tr> <tr> <td>2월 12일</td> <td>유럽 3대 성모발현지</td> <td>13월</td> <td>395 만원</td> </tr> <tr> <td>2월 13일</td> <td>이스라엘 이탈리아</td> <td>12월</td> <td>439 만원</td> </tr> </table> 분도여행사 02.852.8525	2월 1일	이스라엘 요르단	12월	439 만원	2월 10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월	395 만원	2월 12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월	395 만원	2월 13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월	439 만원	초음파 배내장수술 전문 범안과 의원 창원시 용호동 73-62 정우상가 4층 1-1호 055)285-0307 www.wavelasek.co.kr 원장 범진선 다니엘 마르코성지순례 제주 성지순례 (3박4일) 28만 원 성지6개, 신부님동행, 특2급 호텔 010-5150-2625	가톨릭신문투어 ▶ 1/8 터키 그리스 13일 399만원 ▶ 1/16 이스라엘 일주 9일 375만원 ▶ 1/27 발칸반도 12일 355만원 ▶ 1/28 유럽 성모발현지 13일 375만원 ▶ 2/15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일 468만원 02.2281.9070 www.cttour.org	천차만차 대동모터스 매매 31호 모든 중고차 매매 알선 위탁 창원시 의창구 무역로 489 (팔용동) 구용출 힐라리오 안경미 세라피나 055)288-1137 010-6299-1137 
2월 1일	이스라엘 요르단	12월	439 만원																
2월 10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월	395 만원																
2월 12일	유럽 3대 성모발현지	13월	395 만원																
2월 13일	이스라엘 이탈리아	12월	439 만원																



살레시오회 돈보스코 직업전문학교 학생모집

기간: 2020년 3월~12월 (2월 예비학교)
내용: 기계가공, CAD/CAM, 인성교육
혜택: 교육비 전액무료, 수당지급,
취업(최근 5년 평균 취업률 93.3%)
문의: 02·828·3600, www.donbosco.ac.kr

명례성지 미사안내

송년감사미사: 12월 31일(화) 16:00
신년 해맞이미사: 1월 1일(수) 06:45
미사 후 떡국 나눔이 있습니다.

바로로달 시청각통신성서교육원 학생모집

과정: 입문/중급/성바오로 신학영성 중 택
방법: 우편과 이러닝(동영상 강의) 성경공부
원사: http://uus.pauline.or.kr
마감: 2020년 1월 31일(금) 까지
문의: 02·944·0819~24, 010·5584·8945

| 회원동봉당 제23대 사목협의회 전례분과장님을 왕영숙(요안나)으로 정정합니다.

양덕동성당 제24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황성철(에드워드)
사목부회장(남성): 김영옥(요아킴)
사목부회장(여성): 김종순(마들렌)
총무: 윤종수(마르코)
여성협의회: 김종순(마들렌)
기획관리분과장: 윤종수(마르코)
재정분과장: 김정배(사도 요한)
복음화분과장: 김경진(아네스)
전례분과장: 정옥희(그라시아)
구역분과장: 조숙희(올리아)
사회복지분과장: 김미경(노엘라)
시설관리분과장: 김현주(레오)
청소년분과장: 김성훈(베드로)
교육분과장: 강병수(시메온)
가정사목분과장: 노순여(아가다)
홍보분과장: 구창희(바오로)

장승포성당 제20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장봉근(마티아)
사목부회장(남성): 서정홍(요한 보스코)
사목부회장(여성): 이필순(아가다)
총무: 송기순(시로)
기획분과장: 김재구(요비노)
재정분과장: 정대명(스테파노)
전례분과장: 이복길(토마)
복음화분과장: 권성우(분도)
교육분과장: 우옥진(올리아나)
청소년분과장: 신요셉(요셉)
사회복지분과장: 방명자(제마)
구역분과장: 조명자(M. 막달레나)
시설분과장: 이기형(베드로)
가정사목분과장: 허정애(올리아나)
홍보분과장: 송규원(바오로)

거창성당 제26대 사목협의회 개편

사목회장: 이종춘(토마스데아퀴노)
사목부회장(남성): 신승열(피델리스)
사목부회장(여성): 전미자(블란디나)
총무재경분과장: 김규태(프란치스코)
기획홍보분과장: 고승환(프란치스코 하비에르)
전례분과장: 광명희(글라리아)
교육문화분과장: 박성규(베드로)
시설분과장: 김경업(라파엘)
복음화분과장: 김현주(로사)
구역분과장: 오선자(글라리아)
사회복지분과장: 김명숙(요안나)
청소년분과장: 이흥영(스텔라)



**영화 “프란치스코 교황: 맨 오브 히스 워드”
관람 안내**

교황청이 최초로 외부에 제작 의뢰하여 만든 영화

개별 관람 시: 천원 할인 (교구보 영화 안내문 제시)
단체 관람 문의: 양종곤 피디 010·9023·6797
100명 이상: 원하는 극장과 시간대에 선택 가능
20~99명: 근처 상영관에서 원하는 시간대 선택 가능

성령기도회	일시	장소	주제	강사	주례	문의
교구	12월 16일(월) 19:00	월남동성당	믿음이란 무엇인가?	최봉근 선교사(디도, 세계복음화 선교회)	김태호 신부(스테파노)	010·5072·5612
창원지구	12월 16일(월) 19:00	반송성당	회개를 통한 구원의 삶	윤영수(스테파노, 전국회장)	안찬모 신부(아나시오, 삼위일체)	010·9421·3377
청년	매주(화) 19:30	교구청별관지하	성령기도회	19:30 목주기도 / 20:00 기도회(첫째주: 미사, 셋째주: 치유기도)		010·6667·7809

수도회 성소자 모임	일시	장소	문의	비고
천주의 성 요한 의료봉사 수도회	11월 16일(토) 14:00	서울 개화동 수도원	010·3800·1579/vocationoh@daum.net	보건 및 복지에 관심있는 젊은이

라파엘여행사

- ◆ 이스라엘, 오르단 10일 3/29, 4/20(289만원)
- ◆ 이스라엘 9일 1/30(369만원), 3/30(299만원)
- ◆ 이태리 일주 9일 2/25, 3/12(279만원)
- ◆ 스페인 포르투갈 10일 3/4(239만원)

문의 (주)라파엘 여행사 02)778-8565

정용근 내과 의원

관절·류마티스 전문병원
통풍, 일반내과, 자가면역질환

창원시 중앙동 한서빌딩 2F
055.713.7771

원장 정용근 프란치스코

마산 예경요양병원

(치매, 중풍, 만성 노인성 질환)
예경병원
(알코올 및 정신 질환)

055)249-5555 (구. 마산 파티마병원 자리)
이사장 김석주 베네딕토 011-592-8329

* 부모님처럼 모시겠습니다.*

(주) 성운고속관광

“신자분 우대 합니다”

45인승 (대형) 성지순례 출퇴근 일반여행 산악회
16인승 (벤츠) 골프 VIP 공항투어 웨딩 가족관광

대표 김종규 바오로
010.4588.3448/055.273.0505

우리농 직매장 2호

이용시간 : 월~금 09:00~17:00
토 09:00~15:00

가톨릭여성회관 입구
창원시 마산회원구 석전2동 224-7
055.293.5605

수맥홍(홍)침대

주보 지참 교우 우대
거실 황토소파

평화방송·신문 광고 中
1588-5335

명례성지 소금 판매

소금판매 수익금 전액은 소외된 이웃들을 위해 쓰입니다.

합초 소금 200g 1만 원
신청: 055.391.1205

예비신학교 졸업미사와 신학교 합격



교구 예비신학생·예비여성소자 졸업미사가 12월 1일 교구청 1층 강당에서 정연동 세바스찬(교구청 성소국장) 신부의 주례로 봉헌되었다. 이날 미사에는 예비신학생과 예비여성소자 70여명이 참석하고, 학생들은 2020년 광주가톨릭신학교에 합격한 5명의 졸업생을 격려하고 축하하며 2019년 예비신학교를 마무리하였다.

박지우 임마누엘
남해성당

사제 성소의 길을 걷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업을 정하여 취직하여 살아간다는 일이 아님을 압니다. 단순히 하고자 하는 의지만으로는 힘들다는 것도 압니다. 하지만 제가 걸어가고자 하는 길을 걸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기에 제가 제 자신을 바꿔가고자 합니다. 사제 성소의 길을 걷고자 할 때 도움을 주시고 기도해주신 가족들과 신부님들 그리고 신자 분들 덕분에 광주가톨릭대학교에 입학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임승택 세례자 요한
수산성당

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어 정말 기쁘고, 무엇이든 할 수 있을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신학교에 입학하도록 허락해주신 하느님의 은혜와 저를 위해 기도해주신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장규원 마태오
장재동성당

저를 위해 열심히 기도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셨고, 제가 방황하고 있을 때 여러 모습으로 나타나시어 저를 이끌어주신 하느님의 뜻이 있었기에 지금 행복을 느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함께 입학하게 된 동기들과 손을 맞잡고 서로 기쁨과 행복을 공유하며 누구 하나 빠지는 친구 없이 다같이 사제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정규민 레오
중앙동성당

11월 28일 오후 3시 정말 잊지 못할 날입니다. 그날 광주가톨릭대학교 홈페이지에서 합격자 발표를 확인하는 제 모습은 정말 잊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정말 합격했다는 생각이 들자 기쁜 마음과 함께 그 후에는 걱정도 함께 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걱정은 잠시 접어두기로 했습니다. 신학교에 합격하였다는 것은 이제 시작이라는 뜻 같습니다.

맹현환 다미아노
함양성당

미사 시간에 가장 잘 자던 저는 고 이태석 신부님을 본받아 사제의 길에 응답했고 이제 그 시작인 (광주)신학교에 입학하게 되었습니다. 합격 소식에 설렘과 함께 두려운 마음이 들었지만, 지금처럼 많은 이들의 기도와 격려가 있다면 이 길은 제가 선택한 가장 행복한 길이 아닐까 감히 생각해봅니다. 모두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제 1 독 서 이사 35,1-6L.10
화 답 송 © 주님, 저희를 구원하러 오소서.
제 2 독 서 야고 5,7-10
복 음 마태 11,2-11

주일 진례